

### 고서연구가의 새해 메시지

## 경자년(庚子年)을 맞는 우리의 자세

지난 기해년(己亥年)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문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한 해였다. 또한 돼지의 해여서인지 몰라도 묘(妙)하게도 국내외적(國內外的)으로 돼지열병이 유행하여 더욱 더 어수선한 한 해였다. 금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희망차고 행복한 일 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그러나 새해 경자년이 지난 기해년 보다 더욱 암울(暗鬱)하다는 전망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격암 유록에서 말하는 경자년의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적어본다.



새해에는 묵은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리라 (사진: 메시아절 경축행사에서 민병철 경남택전협회 회장의 소금연주)

#### 자(子)란 하루로 치면 아반삼경(夜半三更)이요, 일 년으로 치면 동지(冬至) 무렵이다. 칠후 같은 어둠과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의 시간대이다. 어둠의 신인 마귀가 가장 극성(極盛)한 때라는 말이 된다. 어두워져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바로 앞에 전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좌우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예로부터 자축(子丑)은 미정(未定), 인도 사가지(寅卯事可知),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오미낙당당(午未樂堂堂)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축(子丑)은 미정(未定)이라는 말은 삼경(三更=子) 사경(四更=丑)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길이 보이지 않아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전해오는 말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는 집안에서 성현(聖賢)의 말씀이나 수신서(修身書)를 읽으며 마음을 단정히 하라고 하였듯이 온 사방이 캄캄할 때에는 우리는 죽을 없는 영원한 생명

의 세상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오로지 구세주하나님이 늘 가르쳐주시는 바를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할 뿐이다.

#### 계묘 대 환란 대비하라

격암유록 송가전(松家田)에 나오는 구절로서 수룡일수당운(水龍一數當運) 이제 송송(在松松), 화서재수당운(火鼠再數當運) 이제가가(在在家家)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말한 것인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논외(論外)로 하고 수도삼수종말(水兔三數終末) 이제전전(在在田田)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수도는 계묘(癸卯)를 말하며 계묘에 있을 대 환란(患亂)이 우리나라가 겪게 될 마지막 세 번째 환란이 되는 것이다. 마귀는 본래 분열(分裂)과 쟁투(爭鬪), 대립(對立)과 갈등(葛藤)을 조장하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이끄는 영이므로 마귀가 일으키는 환란에 목숨을 보전하는 길은 정도령(구세주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실천하여 이슬성신 감로해인(甘露海印)을 받

아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는 길뿐이라는 뜻이다. 이슬성신 감로해인은 마귀를 죽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대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향유(享有)하게 하는 무궁한 조화의 권능이 있다. 구세주하나님(정도령 미륵불)은 이러한 이슬성신 감로해인을 임의용지(任意用之)하시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구세주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즉 송구영신(送舊迎新) 시간대이므로 묵은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묵은 습관을 버린다면 나의 잘못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일일신수일신(日日新又日新)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하는 자신 속의 묵은 하늘(마귀)을 없애고 사람 살리는 공사만 하는 새 하늘(구세주 하나님)이 나라는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도록 정도령 미륵불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리라.

비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한 자세로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매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나라는 자리에 나라는 의식이 되어 임금처럼 앉아 있는 마귀(묵은 하늘)를 죽여야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도령(구세주하나님)이 말씀하신바 성령으로 거듭나는 소식이요 생명과 일을 먹고 구원받는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식이 아니겠는가?

“경자년을 맞아 우리 다 같이 입에 재갈을 물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3>

#### “자존심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자존심(自尊心)이 괴로움의 씨앗이요, 고통의 씨앗이요, 죽음의 씨앗이다. 자존심만 없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고 남과 다툼 일도 없다.

자존심 때문에 근심·걱정이 있고, 병에 걸리고, 늙는 것이지 나이를 먹어서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이 아니다. 자존심이 마귀(魔鬼)이므로 자존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귀다.

나라는 자존심이 움직일 때는 그대로 악(惡)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을 죽이는, 자존심을 죽이는 생활을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4>

#### “하나님의 말씀을 욕비에 새겨라”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 하여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렇지만 마귀가 가로막고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때마다 구세주는 한탄하며 말할 수 없이 안타깝게서 발바등을 치는 것이다. 인간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마음이다.

나라는 의식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나라는 의식을 마귀인고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 행복한 노년 준비

#### 치매예방 프로젝트4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다

실수가 잦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병”일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러한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으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제3차 입장에서 단순히 답답하게 느끼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될 것입니다. 본인은 듣는다고 듣는데 이러한 일로 번번이 지적을 받는다면 직장생활이 고역일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성인의 경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우울이나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만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 질환자들이 우울증, 알콜중독,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 동반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였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주위의 모든 일에서 받는 정신적 인상을 머릿속에 등록시키고 저장했다가 다시 회상시키는 뇌의 활동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20대를 고비로 점차 퇴행하여 나이를 먹음에 따라 뇌세포도 점차 위축된다고 합니다.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뇌세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꾸준히 써준다면 결코 눈에 띄는 감퇴는 없을 것이며, 나이 변화에 따르는 감퇴는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크게 실수형, 외톨이형, 이직형인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에게 나타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우울이나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만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 질환자들이 우울증, 알콜중독,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 동반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였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첫째, 실수형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시간인지각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외톨이형은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단체생활에서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이직(移職)형은 잦은 실수와 단체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상사의 불공정한 말을 참는 능력이 약해 과잉행동을 보여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주호 기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한편으로는 놀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하는 걱정이 든다.

특히, 기독교인을 만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면 굉장히 거센 저항이 일어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이단같은 소리하지 말라니 사이비 종교에 물들었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하면서 아예 귀를 막고 들어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본래 영생체요 불멸체라는 이야기는 말쑥조차 먹이지 않고 피부색과 겉모양의 생김새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며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는 이야기는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못 낸다.

누가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 동학혁명유족 수당지급 정읍시 결정 환영

동 동 이야기나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니 서구의 물질문명에 한민족의 훌륭한 사상과 정신은 약취가 나는 송장으로 폐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다.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에게는 기독교나 불교가 유입되기 전부터 ‘하나님’이란 용어가 있었다. 인간을 만들었다는 성경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에서 나오는 용어이니 그 구별이 뚜렷하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같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혼란을 야기했다. 성경상의 ‘여호와’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번역하여 가져다 붙였던 거다.

이 같은 대항사건은 공부를 못한 강종의 아나뎀만 아니라 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조차 눈치를 채지 못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이 역시 기회가 되면 뒤집어서 반전시킬 큰 일거리가 되겠다. 사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승리제단이 최근에 내세운 이야기 꺼리가 아니다. 지금부터 약 125년 전 동학인들이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기초사상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탄압은 잘 알다시피 피비린내나도록 참혹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게 뭐지’하는 정도로 잘 모른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하니 크게 놀랄 일이다. 혁명의 참여자 유족이란 동학운동을 한 사람들의 가족을 의미하는데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셔서 자녀나 손자 혹은 증손자를 포상의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반봉건, 반외세의 저항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인식도록 하는 역사의 이정표다. 동학혁명에 참여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읍시가 말하나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다시금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안준영 송사/시드니제단

### 승리채널 유튜브 소식

승리신문사 유튜브 채널(승리채널)에 게시된 동영상 소개  
- 회춘샘(Fountain of Youth)  
- 강중산 선생 말씀한 대두묵은 누구인가?(https://youtube.com/Dqx3inRyH9s)

-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방법(텔로머라제 활성화) https://youtu.be/rHUWIGAZhF8  
- 혈액 속 놀라운 비밀(https://youtu.be/oYNHh6pHCQI)\*